

보도시점 2026. 3. 31.(화) 11:30 배포 2026. 3. 31.(화) 8:30

“아시아 예산·재정당국 고위관료들, 재정관리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에 머리 맞대”

- 아태재정관리협력체(PEMNA) 고위급 총회 3.31.(화) 서울 개최
- 박홍근 장관, 기획예산처 첫 고위급 국제행사 주최하며
글로벌 재정협력 리더십 발휘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26.3.31(화) 서울 신라호텔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재정관리협력체(이하 ‘PEMNA’) 고위급 총회를 개최하였다. PEMNA는 ’12년 출범한 아·태 지역 재정당국 간 정책교류 협의체로서 이번 총회는 기획예산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주최하는 고위급 국제행사이다. 총회에는 아시아 재정당국 장·차관, 세계은행 아태 총괄국장 등 PEMNA 회원국 및 협력 기관 고위급을 포함해 200여 명의 정부대표단과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PEMNA: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Pacific >

- 설립배경: 아태 지역에 한국의 재정정책·시스템 등 지식·경험을 전수하여 역내국들의 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세계은행 주도로 출범(’12년)
- 회원국: 아시아 14개국 (한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몽골,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브루나이)
- 자원 출연: 한국(기획예산처), 유럽연합(EU)
- 운영 관리: 세계은행(운영책임), 조세재정연구원(사무국 역할)
- 주요 활동: 분과별 회의(3개 분과: 예산·국고회계·재정수입), 연구사업, 방문연수 등

이번 총회 주제는 ‘디지털 전환과 재정혁신’으로, 회원국 대표들은 자국의 디지털 활용 재정관리 및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성 제고와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초대 장관으로서 행사를 주관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신설 기획예산처의 비전과 역할을 소개하고, PEMNA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PEMNA를 더욱 강화된 협력 플랫폼으로 쇄신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촉구하며 PEMNA를 향한 세 가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먼저, 아시아 재정협력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여 아시아의 PEMNA를 “^①세계가 인정하는 모두의 PEMNA”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아시아의 재정운용 경험을 PEMNA를 통해 세계로 확산시켜 아시아의 모범 사례가 글로벌 표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PEMNA가 “^②디지털 기반 재정관리 협력 플랫폼”으로서 예산편성, 재정데이터 분석, 위험 예측,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 등 회원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③중장기 구조적 과제 대응에 연대하는 정책 네트워크”로서 PEMNA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랄리타 무르티 세계은행 아태 지역 국장은 “기획처 출범으로 한국의 중장기 전략 수립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장기 구조개혁을 재정 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한국의 모범사례가 PEMNA를 매개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널리 공유·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월터 반 하툼 주한 EU 공사는 “재정정책 당국인 기획처 출범으로 PEMNA 협력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EU도 PEMNA가 회원국의 지속가능성장을 촉진하는 재정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재정혁신 사례도 크게 주목받았다. 이용욱 기획처 재정참여정책관은 기초발제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 한국의 디지털·AI 기반 재정관리 혁신 경험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로미오 메튜 발랑킷 필리핀 예산관리부 차관보는 한국 디브레인 사례에서 디지털·AI 기반 재정혁신의 가능성과 실제 적용 방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어 간다고 언급했다.

총회에서 소개된 다양한 사례와 제안을 토대로 역내 재정 분야 디지털·AI 활용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은 이번 총회 개최를 통해 역내 재정협력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한편, 신설 기획처의 비전과 역할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림으로써 국제사회와 본격적인 재정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PEMNA를 통한 역내 재정 거버넌스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재정 이슈 논의를 선도하며 한국의 재정운용이 전 세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첨부 1. 기획예산처 장관 개회사
- 2. PEMNA 고위급 총회 프로그램
- 3. 개회식 사진(별도 배포)

담당 부서	재정참여정책관 국제재정협력과	책임자	과 장	황유실 (044-214-1930)
		담당자	사무관	윤영준 (yoonyj95@korea.kr)



PEMNA 고위급 총회

'26.3.31.(화)
08:30~17:00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개 회 사

2026. 3. 31.

기획예산처 장관
박 홍 근

[인사 말씀]

존경하는 톨란도 톨레도 필리핀 예산관리부 장관님,
산티나 카르도조 동티모르 재무부 장관님,
랄리타 무르티 세계은행 아태 지역 국장님
이 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님
PEMNA 회원국 차관님들과 대표단,
여러 협력기관 관계자 여러분,

PEMNA 고위급 총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급변하는 대외 통상·안보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 현안으로 바쁘실 텐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준비해 주신
세계은행과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PEMNA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유럽연합(EU)측에도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기획처 출범과 이번 총회 의의]

이번 총회는 한국 정부에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올해 1월, 한국 정부는 예산편성과 재정관리를 효율화하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예산처를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총회는 새롭게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국제행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지난주 취임하여
처음 참석하는 국제행사로서 의미가 큼니다.
기획처 초대 장관으로서
이렇게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성과와 한국의 기여]

2012년말 서울에서 창립 총회를 열어 출범한 PEMNA는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재정 분야 정부간 협력을 선도하는
중요한 정책 네트워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회원국 재정당국 간 지속적인 교류와 지식 공유를 통해
각국은 서로의 정책 경험을 배우고
재정관리 역량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각국의 정책과 제도는
지난 십여 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필리핀 실무대표로서 PEMNA 초창기부터 참여해오신
롤란드 툴레도 장관님이
PEMNA의 산 증인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PEMNA는 단순한 정책교류 프로그램을 넘어
신뢰와 연대의 공동체로 자리잡았습니다.

한국은 PEMNA의 후원자이자 회원국으로서
재정 분야에서 축적해 온 정책 경험을
동료 회원국들과 활발히 공유해 왔습니다.

특히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디브레인(dBrain+)은
재정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 사례로,
회원국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선
한국의 과감한 재정정책 사례*는
위기시 재정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20.5월 회원국 요청으로 긴급 화상회의 개최해 추경 등 한국 재정대응 소개

앞으로도 PEMNA 회원국들과 함께 배우고
더불어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대외 여건 변화와 PEMNA]

지금 세계의 재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AI는 정부의 재정관리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재정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시대, 공공데이터 활용은 필수이며,
그 중에서도 재정데이터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재정데이터를
AI 기반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구조적 문제들도 재정에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 등은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입니다.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이러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각국이 혼자서 모든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가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PEMNA의 미래 제언]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살아남는 종(種)은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라는 찰스 다윈의 말처럼,
저는 3기*에 접어든 PEMNA가
이런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PEMNA: (1기) '13~'19년 (2기) '20~'24년 (3기) '25~'29년

이 자리에서 PEMNA를 향한
세 가지 도전적인 비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모두의 PEMNA’입니다.

PEMNA는 이미 아래 지역에서
대표적인 재정협력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과 성과를 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재정협력체, 국제기구 등과도
활발히 소통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PEMNA의 가시성을 제고하고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재정 이슈 논의에서
아시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과 AI 기반 재정관리를 선도하는
혁신 기반 협력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은 공공재정 관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재정데이터 분석, 재정위험 관리,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PEMNA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가 간 경제발전과 재정 역량의 격차는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보편화된 디지털·AI 기술을
재정관리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
간격은 좁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반 재정관리 혁신은
회원국 간 간극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PEMNA 밖의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셋째, ‘증장기 구조적 과제 해결에 연대하는
정책 네트워크’입니다.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AI 기반 산업전환 등은
회원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제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를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습니다.
한국이 기획예산처를 출범시켜 국가 증장기 전략 수립과
재정의 연계를 강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국가의 의지와 행동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행동하는 협력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구조개혁 경험은 PEMNA의 자산이 될 것이며,
회원국들의 경험 또한 한국에 유용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함께 준비하고 연대하여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갑시다.

[마무리: 한국 정부 지원의지 강조]

존경하는 장관님들, 그리고 귀빈여러분

지난 13년간 PEMNA의 발전은
회원국 간 협력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PEMNA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디지털·AI 전환을 선도하고,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회복과 성장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겠습니다.
PEMNA에서 자신있게 공유할 수 있는
혁신 스토리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기획예산처 출범 계기로 한국 정부는
재정과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협력과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증장기 구조적 과제에 대한 재정정책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PEMNA가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서울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회가 각국의 재정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끝.

첨부 2

PEMNA 고위급 총회 프로그램

※ 일자/장소: '26.3.31(화) 08:30~17:00 /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시 간	일정	세부 내용
08:20~08:30	식전 환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차관 등 고위급 참석자
08:30~08:40	단체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급 촬영 후 참석자 전원 촬영
08:40~09:30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회사: 기획예산처 장관 환영사: 세계은행 아태 지역 국장, 주한 유럽연합(EU) 공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09:30~10:00	휴 식	
10:00~12:00	공동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조발제: ① 기획예산처 재정참여정책관 ② 세계은행 부국장 고위급 패널토론 (재정관리 디지털 전환의 기회와 위험) - (좌장) 세계은행 부국장 (토론자) 회원국 장·차관
12:00~13:30	자 유 오 찬 (고위급 오찬은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	
13:30~17:00	분과별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분과 (디지털 전환과 예산관리 효율성 강화) - 예산편성시스템 및 통합재정정보시스템(IFMIS) 구축 ※ 한국재정정보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회계 분과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국고관리) - 국고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 및 거버넌스 체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수입 분과 (디지털 전환과 재정수입 행정) -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 추진 ※ 국세청 발표
18:00~20:00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환영 만찬	

* 4.1.(수)~4.2.(목)은 분과회의 및 운영위원회 일정